"丁의 사람 잡아라"…'전북대전' 이 지사 쪽으로 기우나

이재명측, 임무영 이어 정세균 전북 총괄 안호영 의원 캠프 합류
이낙연측, 정 전 총리 측근 이원욱·김교흥 의원 등 접촉 영입 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출마를 접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의 호남 조직을 영입하기 위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과거 정 전 총리의 조직을 돕던 지역 정치권도 빠르게 각 캠프로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호남 대전'을 앞두고 정 전 총리의 조직을 이어받아 '호남 후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나섰고, 이 지사 측은 정 전 총리 캠프의 전북 지역 조직 총괄이었던 안호영 의원이 22일 캠프에 합류하며 호남 내 힘을 키우고 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이날 "안호영 의원이 이 지사 지지단체인 기본국가전북연대 상임고문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SNS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당원들은 민주정부를 지켜내기 위해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사실상 지지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종로 출마 전 4선을 지낸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정 전 총리 캠프에서 전북 조직을 이끌어왔다. 고향도 전북 진안으로 정 전 총리와 같다.

호남 경선 국면에서 정 전 총리의 지역 기반의 핵심 인사 이탈에 따라 추가적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 전 총리 측은 '개별적 행동'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정 전 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원팀을 위해 당분간 중립을 지키며 경선이 끝난 뒤 선출된 당의 후보를 돕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엔 정 전 총리의 국회의장 시절 의장실 부실장 출신이자 이번 경선 캠프에서 특보단 실장을 맡았던 임무영 씨가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13일 정 전 총리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이후 정 전 총리와 측근 의원들에 대한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아직은 공개적으로 이 전 대표 지지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정 전 총리 측도 이 전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새벽 정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인 이원욱 의원 자택을 직접 찾아갔고,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김교흥, 김영주 의원을 잇따라 만나 위로하고 정 전 총리의 못 다 이룬 뜻을 함께 받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지난 19일에는 전주에서 정 전 총리의 전북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주 의원 등을 만나 호남 출신인 정 전 총리와 인연을 강조하며 민주당 대선이 역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남 목포와 여수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저녁 늦게 전주에 와서 밤 늦도록 김성주 의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한 정치인은 "광주와 전남에도 정 전 총리의 지지층이 상당했고, 실제 조직을 꾸렸기 때문에 정 전 총리의 조직이 어디로 가는지도 '호남 대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최근 일부 정세균 지지층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 필수 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을 찾아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명-낙, '대장동' 대충돌…5·18 광주까지 소환

광주, 전남·북 TV 토론회 격돌
이재명측 "야당 대변인 되려나"
이낙연측 "야당과 엮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성남 대장지구 의혹'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앞서 지난 19일 호남 순회 경선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광주·전남·전북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쟁점이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 캠프를 향해 "이 전 대표를 국민의힘과 엮으려는 프레임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와 캠프가 이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과 한배를 타는 것인가'라며 공격했다"며 "왜 한배를 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 총을 겨누는 것이냐. 이는 원팀 훼손을 넘어 원팀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국민의힘을 공격하라"고 꼬집었다.

같은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불난 집에서 밤을 구워 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무리 형편이 급하다고 제집 불난 것을 놓고 옆집 탓을 해서 되겠느냐"며 가세했다. 오 대변인은 "이 지사 측은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에 편승했다고 나쁜 후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번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답변한 김부겸 총리는 '나쁜 총리', 의혹을 보도한 모든 언론은 '나쁜 언론',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들은 '나쁜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이낙연 캠프를 향해 '야당과 한배를 타려는 것이냐'고 공격했던 이 지사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를 야당과 엮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역공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전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게 국감 증인 출석과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야당 대변인이 되려는 것이냐"며 "특검에도 응하라고 할 거냐"고 쏘아붙였다.

공방이 격화되자 이재명 열린캠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 "이 전 대표는 오해를 풀고 '국민의힘 토건 게이트'의 진실을 직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 "토건 게이트를 막으면서 가진 권한으로 최대치의 공익을 환수한 이재명 스타일 모범행정"이라며 "이 전 대표가 그 성과를 주목하지 않으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대장동 사업의 과장된 허구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또 '언론이 보도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데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 언론은 이를 '폭도의 만행'이라고 보도했는데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느냐"고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지난 19일 광주·전남·전북 TV 토론회에서도 '네거티브' 비난을 의식해 직접 언급을 삼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고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적으로 반박, 이른바 '명·낙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소수 업자가 1100배 이득을 얻은 것은 설계 잘못이냐, 아니면 설계에 포함된 것이냐"며 "평소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배치되는 결과다.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법학 공부하지 않았느냐. 1억원 자본금의 회사가 500억원을 투자받아서 250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면 50% 이익이냐 250배 이익이냐"고 응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언론중재법 시한 성큼…8인협의체 논의 헛바퀴

징벌적 손해배상 이견
27일 정면충돌 불가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8인 협의체' 논의는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다.

남은 기간 여야가 극적인 타협에 이르지 않는 이상 본회의 상정의 '디데이'인 오는 27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협의체 활동은 4일 뒤인 오는 26일 종료된다.

양당 신경전 속에 힘겹게 닻을 올린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석연휴 직전까지 8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쟁점 조항을 일부 완화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전부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이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하면 언론사에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며 한발짝 물러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가 비례·명확성·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성격이 큰데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언론 기사의 노출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오·남용 가능성 지적에 따라 ▲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은 열람차단청구 요건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퇴출' 권한을 갖도록 설계된 것부터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제안대로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축소한다 한들,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26일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는 또다시 법안 상정을 놓고 극한 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명분을 확보한 만큼, 협상 결렬땐 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다시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정정보도청구 부분을 고리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26~27일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명광이앤씨(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진우개발(이하 "을"이라 함)은 서기 2021년 09월 18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서기 2021년 09월 23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명광이앤씨**
(법인등록번호 : 174911-0008228)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927-3
대표이사 : 김 은 숙

"을" 상 호 : **주식회사 진우개발**
(법인등록번호 : 205511-0054601)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147
사내이사 : 문 채 란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태경전기(이하"갑"이라한다)와 주식회사 제이티전력(이하 "을"이라한다)는 2021년 09월 17일 각 회사에서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법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갑"은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을"에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을"이 포괄승계하기로 결의 하였기에 이에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하고자하는 공사업 종류 : 전기공사업(갑) 제 전남-01708호
2. 분할합병 예정일 : 2021년 10월 25일

2021년 09 월 23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태경전기**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105, 2층(공화동)
대표이사 : 서 경 원

"을" 상 호 : **주식회사 제이티전력**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101(미평동)
대표이사 : 김 성 옥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세영전력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혜광전기감리(이하 "을")는(은) 2021년 9월 15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3.

"갑" **세영전력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나노산단로 186-8, 1층
대표이사 오 희 종

"을" **주식회사 혜광전기감리**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54, 507호
(상동동, 유경아이파크텔)
대표자 사내이사 최 봉 호

산행안내

9월26일(일)

▲**광주kj산악회** 9월26일(일) 충남 보령&오서산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69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상가매매(상무지구)

1) 40평(전용) **2억5천**(융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5천**(융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융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